

중독에 맞설 안전한 곳이 필요합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은 전국에 산재한 선교센터와 전세계 도처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매일 우리의 가족과 학교, 교회 그리고 이웃들이 겪고있는 중독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독으로 인해 자신의 삶과 가정이 파괴되어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놓아버려야 할 때에는 오히려 집착으로 놓치 못하고, 꼭 붙들어야 할 때에는 반대로 그냥 놓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실행하는 사랑으로 인해 공동체에는 사랑이 흘러넘치고, 치유경험으로 인해 사람들은 매일 성공적으로 중독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웨슬리언 전통은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굴레들, 그것이 마약이든, 술이나 섹스든 또는 도박이나 음식, 페이스북이든, 그 굴레들을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 어떤 것에 대한 중독이든 간에, 중독은 우리가 “전인적인 인간이 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더이상 중독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우리는 중독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다른 정신건강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수치심은 이미 중독으로 인한 외상적 상황에 오명을 더해 줍니다. 약물의존과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 그리고 습관적인 행위들 사이에 복잡한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중독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속성들은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기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중독은 그저 모르는 척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가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가족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고, 그런 그들을 위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함께 모일때, 우리는 각자 자신의 짐을 지고 모입니다. 그 짐들 중 어떤 것들은 쉽게 나눌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중독에 관련된 짐들은 쉽게 꺼내지 못하여 비밀로 하다가, 문제가 너무 깊어지고 커지거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더이상 숨길수 없게 되서야 밝혀지게 되는 것을 너무 자주 보아 왔습니다.

문화적으로, 우리는 약물치료와 수감의 두가지 방식으로 중독과 그에 동반되는 중독자들의 위험한 행동들에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가지 방식 모두 중독의 근본적인 인격적, 영적, 감성적 요소들에 대처하는 방안은 아닙니다. 의과적인 치료는 회복하는 데에 도움이 되거나 아주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교도소에서의 재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재범율과 재소자들의 수는 지금 보다 훨씬 적어야 할 것 입니다.

치유를 위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돈이 있는 사람들, 의료계, 가족, 고용주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질병이 커버되는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불법 소지와 거래, 금융비리 등과 같은 중독과 관련된 범법행위로 수감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성 수감자들의 수가 늘고는 있지만, 오늘날 교도소는 젊은 흑인 남성들과 히스패닉 남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중독에 관한 통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사처벌 비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독을 통해 이익을 보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투자를 점검하십시오. 후원에 대해 고려하십시오. 여러분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은 우리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말한대로 실천” 하기를 바랍니다.